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Spring VOL.10

딸로 충만하게
아내로 애뜻하게
웁마로 푸곤하게
이생의 인연으로 마주한
세상의 반쪽 나의 전부





Prologue
일을 선택한 그대를 위하여 03

Good Doctor
전연령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 사람 04

Column_1
조용히 가슴을 파고드는 여성들의 적, 유방암 08

Column_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10

Column_3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 갱년기와 폐경 12

Column_4
임신 하셨어요? 혹시 고위험 산모신가요? 14

Smart Tip
다이어트 바로알기 16

Introduction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18

Focu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안전합니다 20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 조지아 오키프 22

Travel
강릉에서 만나는 한류의 시초, 허난설헌 24

Photo Story
동국대학교의료원 그 안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26

Zoom in Dongguk
DUMC NEWS 27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Woman

일을 선택한 그대를 위하여

강추위가 몰아친 올 연초, 가슴 시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한 여성공무원이 정부 세종청사의 차디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요. 사망 원인은 심장 이상. 전날 에도 사망 당일인 일요일에도 그는 ‘새벽 출근’에 나섰다는군요. 그의 비보를 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초과 근무가 단지 그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헌데 그의 죽음이 좀 더 애처로운 건 오랜 기간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지내다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이어서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터로 복귀하면서 그는 아주 행복해하고 한껏 들떴었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입니다. 새로 맡은 일에 대한 열정도 컸대네요. 하지만 고만고만한 세 아이를 두고 새벽에 출근하는 게 어찌 마냥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졌던 설렘은, 경단녀라면 아니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경단녀일 정도로 여성에게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요. 사실 ‘경단녀’라는 용어엔 비판적인 시각이 따라붙습니다. 경력이 끊어지는 게 여성의 일만은 아닐 텐데 유독 여성에게만 붙는 또 하나의 낙인이니까요.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에 막힌 여성은 패배의식, 좌절감, 소외감을 은연중에 강요받기도 하지요. 기꺼이 선택했든, 어쩔 수 없이 떠밀렸든 일터 대신 선택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 편할 수만은 없는 이유겠지요.

그런 이유로 경단녀 대신 ‘새일맘(새로 일을 시작하는 엄마)’이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일맘 역시 가뿐해 보이진 않네요.

‘엄마’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의 무게가 느껴져서겠지요. 육아가 오롯이 엄마의 몫인 한 ‘새일맘’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 없고, 임신 ·출산 ·육아가 직장생활에서의 걸림돌인 한 ‘경단녀’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딸, 아내, 엄마가 일과 육아 사이에서 더 이상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연령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 사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윤 상 호 교수

“선생님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윤상호 교수가 환자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갱년기 증상인줄 모르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도
진단이 나오지 않아 노심초사하던
환자들이 윤상호 교수를 만나
작은 약 한두 알의 처방으로
증상이 개선되자 진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윤상호 교수는 산부인과의 여러 분야 중 난임, 폐경, 월경 이상 등을 치료하는 생식내분비학 전문가이다. 윤 교수를 찾는 환자 중 외래환자의 80%는 폐경기 환자,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자궁이나 난소종양으로 수술받는 환자이고, 이중 상당수는 난임환자이다. 폐경기 환자들은 약물치료로, 난임환자들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구성이 그렇다.

복강경 수술로 임신 가능성 열어줘

“난임치료 중에서 복강경으로 자궁 내 근종만 제거하는 자궁근종절제술이 제 전문분야라 할 수 있죠.”

모든 여성에게 자궁적출은 두려움이다. 특히 미혼이거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윤 교수는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유착이 있을 경우에 복강경으로 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을 다시 예쁘게 복원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물론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지만 말이다.

불임을 최근에는 난임이라고 부르는데, 결혼한 부부가 1년 동안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남성 여성 어느 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 난임일 경우에는 난소와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 나팔관이 막히거나 배우자 정액검사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보아야 한다. 자궁내막증, 난소종양, 자궁근종이 있을 경우 난임이 되기도 한다. 사춘기인데도 생리가 없을 경우 다낭성난소증후군일 수 있다. 이 경우는 배란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어렵다.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 아직 미혼이거나 출산 전이라면 향후 출산을 위해서 자궁을 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복강경으로 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을 복원해두면 임신과 출산이 다 가능한걸요. 한번에 혹을 9개나 뎀 환자가 있었어요. 자궁수술 이후에 환자가 임신도 하고 무사히 출산을 마치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요.”

자궁내막증은 가장 큰 불임의 이유 중 하나다. 난소에 혹이 생기면서 골반에 유착이 생긴것인데 수술하면 난소기능이 많이 떨어질수 있다. “복강경 수술 후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 두 번째 시술에 임신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보람이 컸죠. 환자 가족도 너무나 좋아하셨구요.”

건강한 삶 위해선 갱년기 관리 필수

윤상호 교수는 생식내분비 전문가라 폐경기 여성을 많이 만난다.

“폐경기라는 말보다는 폐경이행기와 폐경기를 모두 포함해 갱년기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폐경학회에서는 ‘사추(秋)기’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갱년기의 심리적 변화, 감정변화, 신체변화 등이 사춘기에 버금가는 변화라서 사추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윤 교수는 여성 평균 수명이 80~90세 되니까 50세에 폐경을 맞으면 30~40년을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지내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으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지혈증, 치매,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환자분들 중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고 심장 검사하고, 우울하다고 정신과 약 먹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럽다고 신경과 가고, 이렇게 여러 과를 다녀봐도 이상을 발견 못해서 불안해하다가 산부인과 오셔서 호르몬 검사하고 약 몇 알로 간단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40대 이후에 불면증이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갱년기 증상의 하나인데 갱년기 증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혹시 무슨 병은 아닐까’하는 마음에 여러 병원을 두루 다니며 진단조차 나오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난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윤교수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조기발견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산부인과 방문을 두려워 말라고 당부한다.

진료실은 여성들의 사랑방

윤 교수의 진료실은 종종 갱년기 여성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 갱년기 치료받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중년여성들이 친구나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오기도 하고, 본인이야기, 가족이야기, 부모이야기 등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간혹 폐경을 맞은 엄마와 가족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가족들이 엄마 손을 잡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윤 교수는 호르몬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에게 객관적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보여주고 40년 정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플랜을 짜준다.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주부들이 많지만 윤 교수는 갱년기 치료법으로는 여성호르몬 공급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제 아내가 갱년기가 오면 저는 호르몬을 처방해줄 겁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첫아이 계기로 산부인과 의사 돼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시골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료했었다. 시골보건소는 농사얘기, 자녀얘기 풀어놓고 가는 사랑방이었다. 공부만 하던 윤 교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시기 아내가 첫아이를 임신했는데 조기양막파수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임신유지도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첫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윤 교수가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대학생 때 농촌봉사활동가면 부녀반장을 맡곤 했어요. 제가 여성들과 정신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었나 봐요.” 두 딸의 아빠로, 자상한 남편으로, 난임 여성과 갱년기 여성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로... 아무래도 윤상호 교수는 여성의 동반자가 될 운명이었던 듯 싶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윤 상 호 교수

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전임의(생식내분비, 불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
Reproductive Medicine 연수

전문진료분야
복강경수술(자궁근종, 난소종양),
골다공증, 갱년기질환, 월경이상, 불임,
다낭성난소증후군, 미성년여성질환

진료시간
오전» 월, 수, 금 오후» 월, 수

문의
산부인과 외래 031 · 961 · 7350



곽범석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정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드는 여성들의 적, 유방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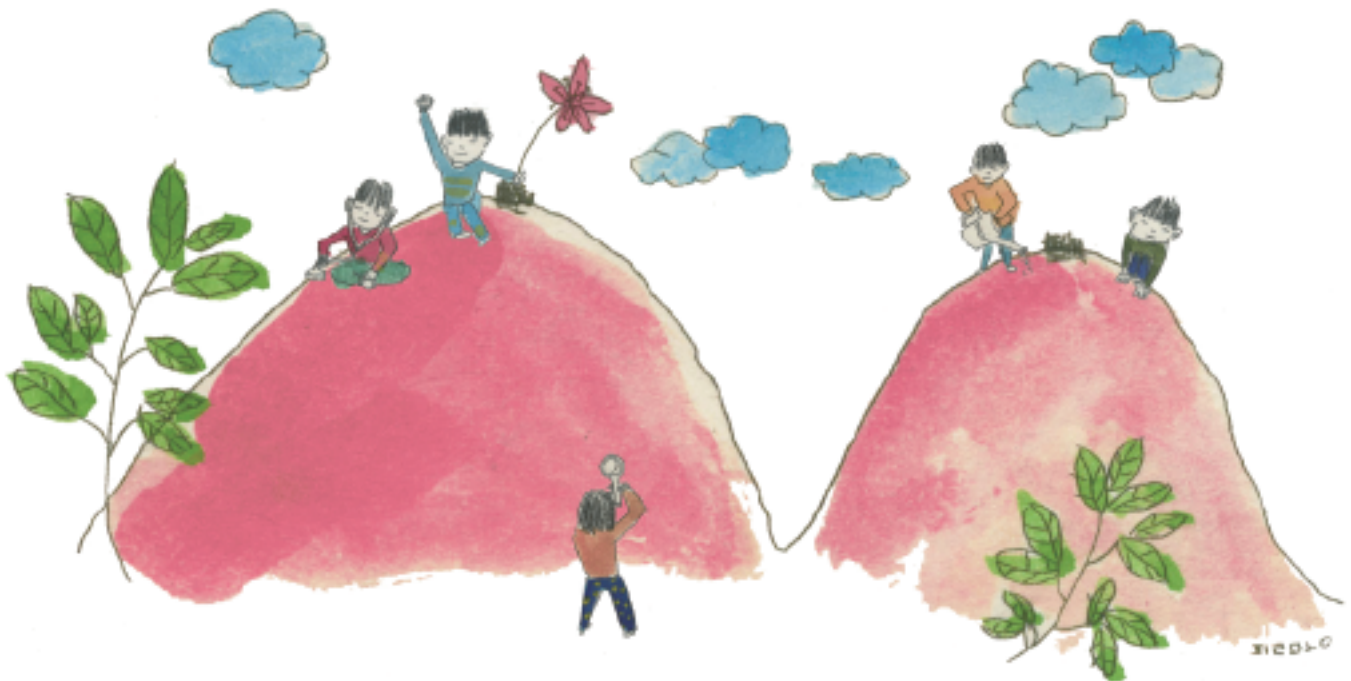
아무 통증도 느끼지 못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리소문없이 생긴 유방암,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유방암

유방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여성 8명중 1명에게서 발병하는 가장 흔한 여성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에 이어 두번째로 흔한 여성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현재 4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20~30대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사이에 유방암 발생 환자수는 4.3배 증가하여 한 해에 1만 6천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있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발생률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유방암, 왜 걸릴까요?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발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을수록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 폐경 이후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과도한 음주, 비만,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은 첫 임신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이 잘 밝혀진 암으로, BRCA1, BRCA2 유전자의 변이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들에서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 30%에서는 이러한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느끼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유방 전문의의 진찰과 유방촬영술을 시행 받는 것이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한쪽 유방의 하나의 유관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짜지 않고도 저절로 나오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피부나 유두의 변화입니다. 피부가 함몰되거나 유두가 딸려 들어가거나, 피부가 두꺼워지고 벌겋게 변하거나, 굴뚝질처럼 거칠어지고 붓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암이 진행된 경우 겨드랑이나 목에서 커진 임파선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며, 95%이상 완치율을 보이는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① 유방자가검진, ② 유방전문의 진찰, ③ 유방촬영술 이 세가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의 3가지 방법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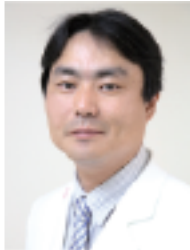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악성 미세석회화를 동반하여 암의 범위가 넓거나, 여러개의 다발성암의 경우에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전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조기유방암이 대부분인 최근에는 70% 이상에서 유방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최종적인 병기 결과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치료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젊을 때 임신 및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적극 섭취하고, 과음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새끼호랑이와도 같아서, 처음에 잘 다스리지 않으면 무섭게 자라나서 우리의 소중한 가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곽 범 석 교수

전문진료분야
유방, 갑상선, 내분비외과
(갑상선클리닉, 유방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수, 토(격주)
오후 » 월, 목

문의
외과 외래
031·961·7732

이채형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정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중에 세계에서 4번째를 차지할만큼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궁건강을 지키면 자궁경부암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자궁은 경부(입구)와 체부(몸통)로 구성되는데, 자궁경부에 발생한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서 생기는 전체 암 발생 순위 중 7위, 사망률은 9위로 한 해 약 3,600여명의 새로운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성생활 개방 풍토가 확산하면서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암 대비 자궁경부암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자궁경부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20대, 30대에서는 이 비율이 11.9%와 1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을 통한 발암성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지속적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약 190여 개의 유전자형이 밝혀졌으며 그 중 40여 종이 생식기관에서 발견됩니다. 암유발 가능성에 따라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분류되며, 16형과 18형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번은 감염될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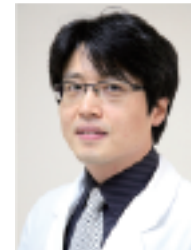
덕분에 감염자의 90%가 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염 또는 특정 유전자형(16형, 18형)에 의한 감염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며 소아청소년 시기에 미리 백신을 맞아 암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또한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는 전암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암 이전단계에서 발견되면 간단한 수술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해 작년부터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작년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만 12세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여아(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가 대상이며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접종 횟수당 15만~18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접종 (comma) 횟수도 3회로 늘어납니다.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으로 접어든 여성들에게도 나이에 맞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연령 제한이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년마다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사(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면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1년에 한번씩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자궁경부암으로부터 100%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는 16형과 18형 외에도 다른 아형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조직이 암이 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자궁경부암의 특성상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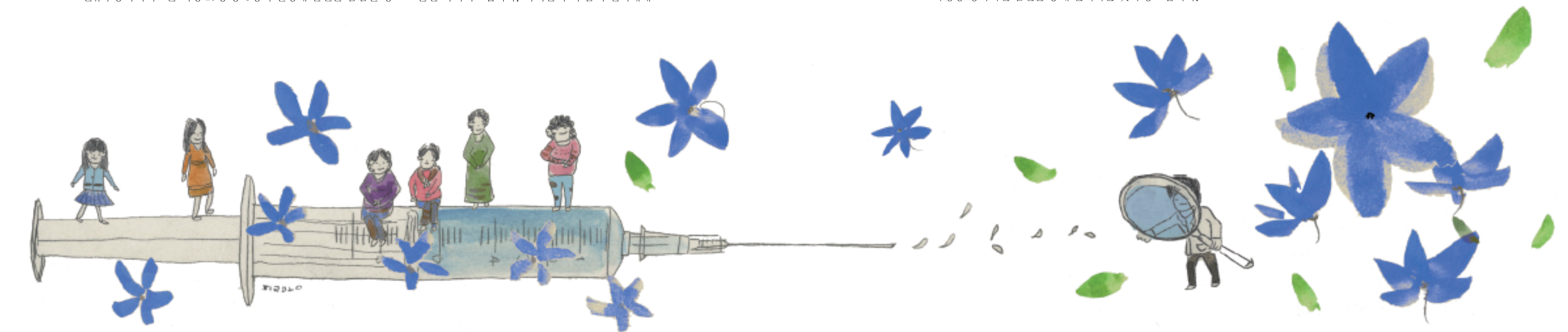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이 채 형 교수

전문진료분야
부인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용모막암),
복강경 수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종양, 자궁외임신), 자궁질탈출증

진료시간
오전 » 화, 목
오후 » 화

문의
산부인과 외래
031·961·7350



양희생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정보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 갱년기와 폐경

중년여성의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갱년기와 폐경입니다.

혹자는 폐경이란 단어가 주는 불편함으로 인해 완경이라고 하며

갱년기는 사춘기에 반하여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갱년기란 폐경이 되기 2-3년 전부터 2-3년 후를 이야기 합니다.

폐경이란 난소의 기능저하로 여성호르몬의 결핍이 발생하여 월경이 소실됨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경우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에 걸쳐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화를 맞게 되는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기 증상을 여자로서 겪어야 할 ‘숙명’이라 생각하고 버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여성의 보다 나은 노년기 생활을 위해 폐경기의 효과적인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약 81세로 40년 전에 비해 20세 가까이 늘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84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만일 암에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평균 9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수명도 길어져야 삶의 질도 좋아지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살아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여행이나 산책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삶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폐경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 안면홍조, 야간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은 화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심하면 외출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폐경기 여성의 70%는 폐경 증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병원은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과 오해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갱년기와 폐경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폐경이란 갱년기에 월경이 영구히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갱년기란, 여성에 있어서 난소 기능이 쇠퇴하여 생식 능력을 가진 시기에서 비 생식기로 전환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더 광범위한 기간을 말하며, 따라서 폐경은 이 갱년기에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왜 갱년기가 중요한가?

한국 여성에 있어 폐경 발생의 연령은 49세 전후이며 이 연령은 지역, 인종, 초경 연령, 분만력 및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령은 과거 수백년에 걸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 대개 전 여성의 90%가 폐경기 이후 계속 삶을 누리며, 폐경 후 약 30년간 살아있게 됨으로 자신들의 생애 전 기간의 1/3에서 1/2을 폐경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로 매우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경은 왜 일어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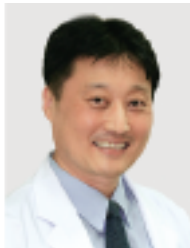
월경이란 생식 능력이 왕성한, 다시 말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난소를 가진 여성에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난소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하여 50세 전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됨에 따라 폐경이 일어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생물학적 기능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고,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학자는 폐경을 정의하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시기”라고 까지 말한적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폐경 후에도 소량의 호르몬은 생산되나 폐경 수년 전부터는 에스트로겐 감소 등 일련의 호르몬 분비가 변함에 따라 전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갱년기 변화라고 합니다. 초기 변화로는 월경의 불규칙, 질건조감, 냉이 심함, 외음부 가려움, 전신으로 퍼지는 홍조,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두통,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후기 변화로는 골다공증, 동맥경화성 심장혈관계 질환 빈도 증가, 기침과 재채기 시 소변이 새어나오는 등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경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방법은 있는가?

호르몬 대체용법(HRT)으로 상당부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약제로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쓰입니다. 약제의 종류에는 에스트로겐 제제인 경우 정제, 질정, 크림 그리고 피부 접착형 패취가 있습니다. 투여방법도 다양화가 되어 있으므로 치료효과, 부작용 및 환자 선호도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하여 각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

양 희 생 교수

전문진료분야
불임, 폐경기관리,
습관성유산, 산과,
복강경수술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금
오후 » 월, 수

문의
산부인과 외래
054 · 770 · 8245



권하얀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정보

임신 하셨어요? 혹시 고위험 산모신가요?

출산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즐겁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숏한 난관이 따릅니다.
임신 후 산모와 태아를 위협하는 각종 질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임신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일컫습니다. 3대 고위험 임신부 요인으로는 조기진통과 중증 임신 중독증, 임신 전 후 심각한 출혈이 있고 이 외의 위험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나이가 만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
- 흡연/알코올 중독인 경우, 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간질,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등)
- 과거 임신력 또는 출산력 상 이상소견이 있었던 경우 (기형아 또는 염색체 이상 태아를 임신, 반복적인 유산 또는 조산, 조기 진통,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 다태 임신, 임신성 당뇨, 태아 기형, 염색체 이상 태아 임신,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내 성장 제한 또는 거대아 임신, 전치 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양수 과다증 및 양수 과소증

고위험 산모에 해당할 경우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거나 조기 분만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갖추어져 있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임신이었다 하더라도 임신기간 동안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고위험 산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시기에 따른 검사를 정해진 시기에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모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유산, 염색체 이상의 증가, 만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과 조산, 임신성 당뇨, 자궁근종이나 태아 가사, 유도 분만과 제왕절개율의 증가,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고령에서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특히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과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계획임신을 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 기형아 예방 및 내과적 질환의 관리를 위해 임신 전부터 사용하던 약의 종류나 양을 바꾸어야 할 수 있으니 임신을 원하는 경우 미리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고 특히 신경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관 결손 예방을 위해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 흡연자가 많아지면서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임신부가 흡연을 하게



되면 저체중 태아 출산, 조산,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가 생길 위험성이 높으며 태아 기형,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비율도 더 높으므로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금연을 시작해야 하며 간접 흡연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 금연도 필요합니다.

임산부가 비만일 경우 임신성 당뇨, 비정상적인 거대아, 난산, 소아비만, 산후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의 경우 태아기형, 거대아, 양수 과다증, 주산기 사망률과 관련이 있고 산후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절이 잘되면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이 양호하게 분만을 할 수 있고 임신 기간중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진단이 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식이요법 또는 적절한 인슐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임신 37주 이전에 자궁 경부의 변화를 동반한 규칙적인 진통이 있을 때 조기 진통이라고 하고 분만이 진행되면 조산이라고 합니다. 치료 시작 당시의 자궁 경부 소실 및 개대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리통처럼 통증이 있을 시, 규칙적인 진통이 있거나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조기 양막 파열 등의 이상이 있을 시에는 빨리 병원을 내원해야 합니다. 필요시 입원하여 안정하면서 진통 억제제 사용, 태아의 폐 기능 성숙 상태, 항생제 사용 여부 및 조산아의 분만에 관하여 상의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조산 및 신생아 사망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도 고위험 산모를 위한 입원비 지원, 임신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속한다고 너무 상심할 일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뿐 적절하게 관리만 이루어 진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전하게 출산을 맞이하 수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권 하 안 교수

전문진료분야
일반산전진찰,
고위험임신(임신중독증,
임신성당뇨,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 전치태반,
쌍둥이임신, 자궁경부무력증),
태아선천성 기형 및
초음파진단, 산전유전진단

진료시간
오전 » 화, 수, 금, 토(격주)
오후 » 수

문의
산부인과 외래
031·961·7350

김유일 교수에게 듣는
다이어트 이야기

여성들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바로알기

비만이란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체지방은 충격흡수,
체온유지, 호르몬 대사 등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많은 지방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적정량을
꼭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김 유 일 교수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 비만, 금연

진료시간
오전 >> 목, 토(격주 진료)
오후 >> 월, 목

문의
가정의학과 외래
031·961·7490

체지방 증가를 막는 식단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과도한 사람들의 여러가지 특징이 바로 앞의 내용을 잘 지키지 못해서 생기게 됩니다. 폭식/과식/군것질 등이 ‘적정량’을 어겨서 과도한 체지방 축적이 발생하게 되고, 금식/단식으로 불규칙적인 식생활이 요요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골고루’를 지키지 못하여 건강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고기, 다양한 과일, 야채 등을 거쳐서 최근 고지방 식단까지 끊임없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영양소/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몸에 부담을 주게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쉬운 방법만 찾게 되면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식단을 보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양을 줄이면서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섭취한 단백질을 체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운동

운동의 종류와 무관하게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너무 위험하거나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종류’ 보다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운동을 크게 유산소/무산소 운동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하여 요요현상을 겪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심하게 부족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유산소’위주의 운동은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육량 자체가 매우 적어서 시간대비 지방 소모량이 충분하지 않아 ‘아무리 운동해도 체중이 줄지 않는’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단백 식단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정량의 근육을 만들기 전까지는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게 되므로 체중 자체의 변화량은 적어서 상심 할 수 있습니다만,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늘어서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므로 멀리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체형의 관리

특정부위의 체지방을 빼고자 하는 것은 비만의 관리보다는 체형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방법과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지방세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운동 및 다이어트로 빠지는 체지방은 몸 전체에서 동시에 빠지게 됩니다. 팔이나 아랫배와 같이 특정부위에 많은 지방을 빼려고 팔운동, 복근운동을 한다고 팔이나 뱃살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온 몸에서 동시에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부위의 지방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운동으로 단련되는 근육이 처짐을 막아주므로 빠지는 지방보다 더 많은 체형 보정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만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 중에서도 비만이 아닌 경우도 많아 자세히 상담 해 보면 체형관리를 원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비만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체형관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방 미용클리닉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어릴 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했다는 말이다. 링컨은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은 밝은 안색, 자연스러우면서도 고운 얼굴을 만들 책임이 있다.
 자연스럽게 세월의 손길이 느껴지지만 곱고 아름다우면서 세월이 살짝 비껴간 듯한 얼굴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이다. 한방미용시술은 피부기능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되찾아준다.

안면미용침

가장 역사 깊고 대표적인 미용관련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얼굴의 주요 경혈에 특수
 침을 놓는 방법으로, 얼굴과 목에 분포한 주요 경락과 경근을 자극함으로써 얼굴
 모양을 바로잡고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 ‘기혈(氣血)’ 순환을 촉진해 얼굴빛을 밝게
 하는 효과도 있다. 피부 진피층과 근육층을 물리적으로 자극해 콜라겐 생성도
 촉진한다. 눈가, 이마, 목, 입가 등 피부가 얇고 미세한 부위의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번 시술할 때 평균 100개 침을 꽂아 고르게 자극을 준다. 얼굴뿐
 아니라 머리와 가슴, 어깨 부위에도 침을 놓기 때문에 각종 근육통과 두통 및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피부탄력, 맑은 피부톤, 주름개선, 안면윤곽교정 및 안면축소, 얼굴과 어깨 혈액순환
 개선의 효능이 있다.



매선침

매선침은 피부 표피와 근육 사이의 섬유층에 자연분해되는 안전한 매선실을 삽입해
 늘어진 피부를 잡아주는 시술이다. 삽입된 매선실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주름을 개선시킨다. 볼, 미간, 팔(八)자주름 같이 굵은 주름과 넓은
 부위에 적합하다. 피부 처짐이나 팔자 주름이 심해지는 40~60대에 효과적이다.
 부위별로 길이와 굵기가 다른 매선실을 주입하는데 의료용 녹는 실로 3개월~8개월
 정도면 자연스럽게 녹아 흡수되어 안전하다. 다만,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하고 알레르기가 있다면 시술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안면리프팅을 통해 V라인만들기, 피부탄력증진, 부분주름개선에 효과적이다.



미세다룬침

아주 작고 가는 여러 개의 침을 피부에 연속해 자극을 주는 시술법이다. 피부에 가벼운
 상처를 주며 피부진피층을 자극하면 콜라겐이 생성된다. 칙칙하고 탄력없는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얼굴빛이 환해진다. 모공과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줄기세포앰플을 얼굴전체에 바르고 미세다룬침으로 얼굴 전체에 자극
 을 주면 피부는 가벼운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곳을 통해 한약추출물과 미용인자가
 피부 깊이 침투하여 피부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피부재생주기를 단축시켜서
 피부결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개선되며 여드름 흉터도 완화된다. 여드름 환자에게
 더욱 좋다. 미세다룬침은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므로, 시술 후 열을 내는 행위(사우나,
 음주, 과격한 운동 등)를 삼가야 한다.

피부자체 재생복원기능 활성화, 피부탄력증진, 혈색개선(미백), 잔주름 개선, 칙칙한
 노화피부 개선, 여드름 관리, 여드름 자국과 흉터 개선, 모공관리, 튜살관리 등
 효과가 다양하다.



한방약초필링

천연한약재 해조류를 이용한 필링제로 피부의 각질과 흑두를 제거하여 피부미백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시술이다. 피부톤이 좋아지고 화장이 잘 반기 때문에
 미백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해조류의 강력한 필링효과로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이 제거되어 여드름환자에 효과가 좋다.

여드름피부개선(등, 팔뚝, 가슴, 얼굴여드름), 여드름 흉터, 여드름자국개선, 블랙
 헤드, 잡티, 기미(색소침착), 모공축소, 피부탄력증진, 칙칙한 피부톤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다.



한방여성체형관리

한약요법, 지방분해침, 경근자극 지방분해요법(중저주파치료), 경피기주요법(카복시
 테라피), 감압체지방치료기(엔더몰로지), 초음파치료기(리포덤), 공기압치료기, 약침
 요법, 뜸요법, 부항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체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준다.
 침 치료법은 일반침과 이침(귀에 놓는 침)을 병행하는데 일반침으로는 지방을
 녹여주고, 이침은 식욕을 억제시켜준다. 한방요법으로 체형관리를 하면 라인이 먼저
 잡히고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줄어든다.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 의학과

김 동 일 교수

전문진료분야

건강증진, 불임, 갱년기, 자궁근종, 월경통, 골반통,
 수족냉증, 다낭성 난소, 산후풍, 피부미용 및 탈모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목, 토
 오후 » 월, 화, 목, 토

문의

한방여성 의학과 미용상담실
 031·961·9061

Patient Safety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안전합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이 병원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요.

병을 낫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병원엔 적잖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깐요.

병원의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은 의료기관에 있어서 진료의 기본 바탕이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2016년 환자안전 ·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열어 병원 교직원과 직원은 물론

내원객들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하고 감염예방의 중요성도 일깨웠습니다.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지난해 11월 15일 1층 로비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진료 과정 참여’,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Speak Up’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서는 ▶검사 시행 전 ▶진료, 처치 및 수술 전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묻고 답하며, 환자 팔찌 또는 진료카드(진료예약증)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데가 병원이지요.

‘당신의 건강입니다. 주저 없이 말씀하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건 ‘Speak Up’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도 일깨워줬습니다. ▶질문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Speak up). ▶올바른 진료 · 치료를 받고 있는지, 올바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Pay attention). ▶당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자신을 교육하십시오(Educate).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Ask). ▶복용 중인 약물이

무엇이며, 왜 복용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시오(Know).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같은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을 이용하십시오(Use). ▶당신의 모든 진료과정 및

치료의 결정에 참여하십시오(Participate)란 내용이지요.

왜 아픈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와 치료 전 과정에 의료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낙상 예방’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환

자 침상 난간 올리기, 보호자가 없을 땐 간호사 호출, 환아

혼자 두지 않기, 이동 시 보호자 동행, 취침 전 소변보기

등이 그 내용이지요.

이날 병원 로비에서는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형광투시

체험 이벤트와 손 오염도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바른

손 위생에 대해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손은 병원 환경에서의 미생물 전파에 가장 좋은 매개체

이므로 손위생은 감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인 예방 및 관리방법이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입니다.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은 환자 접촉 전 후, 무균적

수술 전, 혈액 및 체액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입니다



손위생은 물과 손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알코올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을 씻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환자안전 · 감염관리 주간(11월 14~17일)을 맞아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의료진과 직원 대상의 공모전 · 교육 ·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4일부터 병원 지하 1층에서는 환자안전 사행시와 감염

관리 슬로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전시가 열렸지요. 이번

공모전에서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재치

있게 담아낸 사행시와 슬로건 각 10점씩이 전시돼 의료진

과 직원, 내원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답니다.

16일엔 전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가로세로

낱말퀴즈와 손 위생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이상형 QI

실장이 ‘환자안전법’에 대해, 박성연 감염관리실장이 ‘감염

으로부터 안전한 해외여행’을 주제로 강연도 열었습니다.

이번 주간 행사는 ▶환자안전 사행시 부문 ▶감염관리

슬로건 부문 ▶환자안전 우수부서 ▶손 위생 우수부서 ▶

환자안전 우수직원 ▶손 위생 우수직원을 시상하는 것으

로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에서 만나는 한류의 시초 허난설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을 떠올린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신사임당이다. 올해 1월부터 신사임당의 이야기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한류 스타로 오래전에 자리매김한 이영애가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영애보다 400여 년 이전에 한류를 이끈 여성이 강릉에 살고 있었다. 바로 허난설헌이 그 열풍의 주인공이다.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동국대학교의료원보 동행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Travel



글+사진 박태식

허난설헌 생가터

봄바람이 살랑이는 시기에 벚꽃이 한가득 피어난 강릉의 경포호, 그 옆을 무심하게 흐르는 경포천을 넘어가면 매화나무 꽃들로 둘러싸인 한옥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허난설헌이 살았던 생가의 터이다.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오죽헌에 비하면 규모는 작다. 그러나 아름다움마저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다.

벚꽃으로 경포호가 물들 시기에는 생가터 주변도 그 못지않은 꽃길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의 이곳은 꽃들이 한 아름 피어나 나뭇가지 위에 쌓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함박눈이 쌓인 나무들을 연상시킨다. 이따금 바람이 불면 저택 담벼락의 살구나무에서 꽃봉오리가 사르륵 떨어진다. 담장 위며 초록 뜰에 떨어진 하얀 꽃은 마지막 찬란함을 뽐낸다.

이곳이 좋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경포호에서 생가터로 가는 길에 펼쳐지는 소나무숲은 기대 이상의 풍경을 보여준다. 허리 굽은 소나무들에 맺힌 물기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 길을 걷노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생가터의 앞에는 오래된 왕벚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언제 찾아도 아침마다 비질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 깔끔하기 그지없다.

입구를 통해 생가터로 들어가면 괴이한 모습으로 비틀어져 있는 묘한 형태의 향나무가 보인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의 생가터는 당시 그녀가 살던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볼 수 있는 한옥은 지난 2001년에 복원된 모습이다. 깔끔하게 꾸며진 내부에는 허균과 허난설헌 남매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처럼 멋진 풍경들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허씨 가문의 어린 남매는 커서 문학계에 이름을 떨친다. 그 아이들은 난설헌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는 허초희와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다. 어려서부터 허초희는 가문의 자랑이었다. 난설헌(蘭雪軒)이라는 호도 난초의 청순함과 눈처럼 순수한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기에 생겼을 것이다.

난과 눈을 닮아 어여뻐던 그녀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벌써 문학의 소질을 보여 신동이라 불렸다. 그토록 장래가 촉망받던 그녀였지만 시대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과 혼인을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물론 고부간의 갈등, 아이들을 잃는 등의 불운은 연달아 찾아왔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리 오랜 삶을 살지 못했다. 불과 27세에 요절한 것이다. 살아생전에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한스 러워하며 글 속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냈다. 그렇게 남겨진 200여 편의 시는 그녀의 남동생인 허균의 눈에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허균은 누이의 시를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에게 맡겼는데 18년 후 난설헌집(蘭雪軒集)으로 간행되어 중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허난설헌의 시는 그녀의 생가터 바로 앞에 있는 기념관에서 볼 수 있다. 기념관에서는 허난설헌뿐만 아니라 허균을 비롯한 다른 허씨 가문 이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허난설헌은 여러모로 신사임당과 견주어 보게 된다. 허난설헌은 한시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는 불렀고 신사임당은 그림에 있어서 그 못지않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이 같은 시간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신사임당은 1504년에 태어나서 1551년 명종이 통치할 시기에 명을 달리했고 허난설헌은 그보다 늦은 1563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신사임당이 살던 오죽헌과 허난설헌이 살던 생가터의 거리는 불과 4km 남짓에 불과하다. 같은 지역에서 이처럼 긴 세월 기억되며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작가가 둘이나 탄생한 것은 강릉의 그림 같은 풍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

주변 여행지

경포호 •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경포호 주변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좋은 길이다. 더욱이 허난설헌 생가터에서 경포천을 경계로 접하고 있어서 접근이 편하다. 경포호 주변을 한 바퀴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내외다.

선교장 • 경포호에서 운정 삼거리 너머에 있는 선교장은 강릉의 대표적인 사대부 가옥이다. 예전에는 선교장 앞까지 물이 들어왔고 배다리를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던 곳이기에 선교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죽헌 • 경포호 주변에서 허난설헌을 만났다면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을 만날 수 있다. 오죽헌은 검은 대나무가 유명한 곳으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장소이다. 위치는 허난설헌 생가터에서 서쪽으로 약 4km 남짓 떨어져 있다.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말하고 싶다고 모두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조지아 오키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조지아 오키프의 사진

광활한 뉴 멕시코의 땅 위에 한 줌의 재로 흩어진 한 여인이 있다. 그녀에게 그림은 친구이자 자신의 모든 삶이었다. 황반 변성에 시달리고 점차 눈이 보이지 않게 되던 순간에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조지아 오키프, 그녀의 그림은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그림은 마치 자연으로 되돌아간 오키프의 영혼을 싣고 다가와 우리를 온전히 대 자연 속으로 이끄는 것 같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상상은 더 없이 자유로워진다.

조지아 오키프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평가 받는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미국이 세계 예술의 중심이 되기 전부터 가장 미국인다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여성 화가가 혼자서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기 어렵던 20세기 초에 그녀는 세상의 편견을 묵묵히 넘어서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고 이를 지켜냈다. 당시 유행하던 유럽의 예술 사조에 영향 받지 않고 구상과 추상이 교차하는 독특한 이미지는 그녀를 ‘여류’ 화가로 불리게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위스콘신 주 선프렐리 근처 농장에서 자란 오키프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미술 과외를 받으면서 화가가 되길 꿈꾸었고, 시카고 미술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 시대의 현실은 독립적인 여성들에게 그리 녹록치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수학하고 교사가 되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서부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그림 세계의 실험을 계속 했다. 오키프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를 찾고자 분투하며 ‘꽃’이라는 소재를 선택해 당시 유행과 다른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그렇게 그린 몇 점이 친구를 통해 당시 미국 현대 미술의 중심에 서 있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게 보내지게 된다. 그는 유명한 사진가이자 뉴욕의 매우 영향력 있는 화랑의 화상이

© Alfred Stieglitz Collection,
Bequest of Georgia O'Keeffe
Georgia O'Keeffe,
Red and Orange Streak,
Oil on canvas,
68.6x58.4cm, 1919



© Alfred Stieglitz Collection,
Bequest of Georgia O'Keeffe
Georgia O'Keeffe,
Red and Orange Streak,
Oil on canvas,
68.6x58.4cm, 1919



© Alfred Stieglitz Collection,
Bequest of Georgia O'Keeffe
Georgia O'Keeffe,
Two Calla Lilies on Pink,
Oil on canvas,
101.6x76.2 cm, 1928



© Alfred Stieglitz Collection,
Bequest of Georgia O'Keeffe
Georgia O'Keeffe,
Cow's Skull: Red, White, and Blue,
Oil on canvas,
101.3x91.1cm, 1931



었다. 이 만남은 조지아 오키프의 운명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그토록 꿈 꾸던 화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됨과 동시에 여성으로서 모욕적인 세월을 살아야 하는 그런 극적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스무 살 연상이었고 유부남이었다. 그러나 둘은 연인이 되었고 함께 살게 된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작품 자체로 보지 않았다. 둘의 관계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오로지 그녀의 작품에서 관능적인 이미지만을 찾아 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티글리츠는 조지아 오키프의 누드 등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것이 예술로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한 여성화가의 평판에는 그리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이미지 덕분에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림도 잘 팔렸다고 한다..

이렇게 6년의 세월을 보낸 후, 스티글리츠는 이혼하고 오키프와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글리츠에게 새로운 애인이 등장한다. 여전히 스티글리츠와 오키프는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상은 부부라기 보다 서로의 예술을 이해하는 동지였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오키프가 받은 배신의 상처는 컸기에 그녀는 병마에 시달렸으며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녀를 구출해 준 것은 그림이었다.

복잡한 뉴욕에서 벗어나 뉴 멕시코의 광활한 대지를 만나게 된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자신의 대한 얼룩진 평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그림을 그린 덕분에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독특한 세계를 인정하고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예술적 깊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상징적인 생물 형상이 드러나는 구상에 추상적 표현이 더해져 신비스런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아침에 일어나 꽃을 가꾸고 오후에는 쉼 없이 그림을 그렸던 그녀의 고독한 삶이 이제 더 이상 ‘예쁜 것’을 그리는 여성 화가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현해낸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시킨 것 일지도 모른다. ●

이지운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그 안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큰 손녀인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며, 힘든 일이 있을 땐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복통과 고열로 고향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던 중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나흘 정도 금식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고, 간호사인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일하는 날, 쉬는 날 매일 할아버지 곁에서 간호도 해드리며 말동무도 되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좋은 결과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 파이팅 하시라고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가족으로 간호사와 환자가 함께 하는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사진+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간호팀 62병동
김 미 송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 취임식

지난 1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장으로 채석래 교수가 임명됐다.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을 역임한 후 2년 만에 병원장으로 복귀했다. 또한, 채원장은 동국대학교의대 부학장 및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전략경영실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4층 중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교원 및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자비나눔기금으로 사할린 강제이주민 심장수술비 지원

사할린 강제이주민 2세대로 2011년 정부 초청으로 영구 귀국하여 김포에 정착하게 된 72세 박 모 씨는 지난해 연말 심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에 들어왔다. 여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안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 흉통과 급사의 위험 부담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러시아 출신 박 모 씨는 저소득자로 고액의 수술비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수술을 주저하고 있는 환자를 보고 담당 주치의는 사회사업실을 연결해 주었으며 공공기금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자비나눔기금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박 모 씨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자비나눔기금 지원으로 수술을 받아 감사하며,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저희 부부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의료진이 있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폐쇄성 폐 질환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2차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 본원은 종합점수 동일종별 평균 73.59보다 크게 높은 92.86점으로 폐 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만성폐쇄성 폐 질환 치료에 우수한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병원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 질 관리를 기본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6년 QI 활동 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모아 1월 11일 제12회 QI 활동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은 '퇴원 예고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발표한 진료부, 간호부, 의료정보팀, 보험심사팀, 원무팀, 약제팀, QI실 연합팀이 수상했다. 또한, 행운권 추첨과 발표 내용에 대한 객식 퀴즈 타임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노력에 대한 결실들을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8개 주제를 포함하여 우수팀 20개의 포스터는 직원식당 앞에 전시하고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우수 포스터를 선정했다.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워크숍에서 공로상을 수상 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 연구용역사업인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에 동참해 정확한 의료관련 감염 감시에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95개 참여 병원 중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KEB하나은행과 Medical 결제서비스 협약식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무회계팀은 지난해 12월 22일 KEB하나은행과 외국인 환자 전용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컬 결제서비스란 외국인 환자가 진료

예약 시 부여받은 외화 가상계좌로 진료비 등을 선 송금하고 Escrow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본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편리한 의료관광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드 결제수수료 절감, 메디컬 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병원은 환자 채무 불이행 방지 및 자금 관리 편의, 차액 지급 등의 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카자흐스탄 한국불교병원 MOU 체결

지난해 12월 19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카자흐스탄 한국불교병원과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양·한방 협진 기관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본원과 카자흐스탄에서 불교 포교활동 및 한국의 의술을 직접 알리고 있는 한국불교병원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낙후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본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장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난 12월 건진운영팀 정기 안전보건교육 담당 산업위생관리기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유아이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현장근로자의 경우 년 간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구연발표 및 화학물질 중독예방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 실시됐다.



구성하여 장기의 구조적인 변화는 물론 생리적인 기능을 영상화하는 장비이다. 또한 인체 심부의 병소 진단 및 치료의 경과 고찰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아울러 각종 기관의 대사성 질환 및 심장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진단 및 암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SPECT의 도입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나득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취임식

2월 17일 제17대 나득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자광 이사장 스님과 보광 총장 스님을 포함한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임 나득영 병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신뢰받는 병원으로 믿고 찾는 병원이 되도록 고객 만족이라는 차별화된 핵심가치를 가지고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 이 되도록 앞장서고 직접 찾아가는 소통하는 병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 경영에 대한 포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 부문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중환자실 감염감시에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를 인정받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지난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국병원 감시체계(KONI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195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원도 동참하여 중환자실 감염감시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봉사동아리 수밋따 의료봉사 및 환경지원 봉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수밋따 봉사단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서 의료봉사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산내면민들을 대상으로 6개 진료과 7명의 교수를 포함한 40여 명의 봉사단원이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경주자활센터와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등 열악한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였다. 아울러 부족한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등 면민들로 하여금 감사 인사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받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승려복지회로부터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본원 원무팀은 2015년부터 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에게 승려복지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입원진료비 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앞으로도 승보공양 후원 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수밋따 봉사단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수밋따 봉사단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서 의료봉사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산내면민들을 대상으로 6개 진료과 7명의 교수를 포함한 40여 명의 봉사단원이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경주자활센터와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등 열악한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였다. 아울러 부족한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등 면민들로 하여금 감사 인사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항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봉사 펼쳐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1월 22일 성남에 위치한 항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반기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등 총 8명의 교직원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평소 관절이나 내과질환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8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후 한의치료와 함께 한약을 처방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최재희(72) 씨는 “가까이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무릎이 안좋아 치료를 받았는데 한결 가벼워졌다.”며 “꼼꼼하고 친절하게 진료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배 탁구대회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탁구동호회(동탁회)가 마련한 ‘제4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배 탁구대회’가 11월 21일 개최됐다. 교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는 A조, B조로 나누어 단식 단체전으로 진행하였고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다. 동탁회는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인정보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애두은 김하얀 강사를 초청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12월 23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보호실태, 대체방법, 유출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로 인한 많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자정보관리를 위해 개인과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함을 교육에서 강조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학대학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지난해 12월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을 획득했다.
특히 평가준비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의학관 해부실습
실·의학도서관·PBL강의실 등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복잡한
학제를 단일 학제로 전환해 2018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전체를 의예과로 선발하게 된 점 역시
심도 깊은 의학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과대학 1기 입학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지난해 10월 29일 경
주의학과 종합강의실에서 의과대학 1기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 교수, 학생 등이 참석
하여 기념식과 추억의 강의, 의학과 투어, 친
교의 시간 및 만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1기 입학생들은 의과대학 발전기금으
로 4천 5백만 원을 전달하였다.
정필현 학장은 “입학 1기 동문들이 모금한 기
금을 후배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
여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한국한의학교육평
가원으로부터 2016년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
인증 결과 ‘우수인증’을 통보받았다.
인증기간은 5년이며, 한평원이 교육부로 부터
인증기관으로 승인받은 후 동국대학교가 최초
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참사람 인재양성대학
을 비전으로 한국 한의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
하고 한방의료를 통한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나눔의 동행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 발전기금 1천만 원 쾌척

남한산성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지난해 11월 1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5백만 원씩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학명스님은 매년 나눔 포교 도량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 내 복지사업과 후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약사여래의 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
하며 자비 나눔을 계속하고 있다.



해량 스님, 환우와 불자를 위한 불교도서 기부

월정사 중대 사자암 해량 스님과 도서출판 모과나무는 지난해 불교도서 300권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환우 및 신도를 위해 150여 권을 추가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원내 지도법사 증취 스님과 감원 해량 스님, 모과나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피’,
‘천년의 성지 천년의 가피’, ‘다녀왔습니다’, ‘출가학교’등 총 450권이 기증됐다.
이날 기증된 불서는 원내 법당을 통해 환우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Spring** VOL.10

발행인 오민구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7년 3월 1일 (통권 10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